후쿠이 동굴

Fukui cave

주소 요시이쵸 후쿠이 이와시타 1013
(吉井町福井字岩下1013)

교통 국도 204호「스미요시(住吉)」교차로에서 후쿠이동굴·나오야성지 방면으로 사이히(西肥)버스 마츠우라(松浦)행·시모후쿠이(下福井)버스정류장장차

주차장 있음 (무료)
견학시간 9시~17시 (연말연시 제외)
연락처 사세보시 교육위원회 문화재과
TEL 0956-24-1111

스마트 폰
사이트는 이쪽으 로

https://www.fukuicave.jp/wg/

2021.3.31

사세보시 교육위원회
—Sasebo City Board of Education—

후쿠이 동굴

일본열도 남서부에 위치하는 사세보시.
이곳은 대륙으로부터 보면'동쪽의 현관'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만9천년 전,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가
유라시아대륙에서 동굴 벽화에 원시 회화를 그리고있던 때,
이미 동아시아로 건너온 인류는 초원과 동굴을
이곳저곳으로 누비며 생활하는 '수렵 채집'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생활들이 다른 유적과 비교해 보아도 잘
남아있는 유적이 바로 이 '후쿠이 동굴'입니다.

처음 일본열도에 인류가 진출한 것은 약 4만년 전 구석기시대. 한랭한 빙하기를 살아남은 구석기인은 큰뿔사슴(Sinomegaceros yabei) 등의 대형동물을 찾아 유동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죠몽시대(신석기시대)는 1만5~6000년 전에 시작됩니다. 점점 온난화를 향해가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기후 변동은 당장 내일의 기후가 예측 불가능한 가혹한 환경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인류가 낳은 사냥도구는 '좀돌날'이라고 불리는 '결합할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면도날과 같은 형태를 가진 이 석기는 뼈나 나무의 양옆으로 장착하여 사용했습니다. 날이 무뎌지면 바꿔끼울수 있는 것 뿐 아니라 날의 양도 늘릴 수 있어서, 한개의 돌로 만드는 창과 같은 도구보다도 큰 사냥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약1만1000년 전 경이 되면 온난화로인해 숲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형동물 대신 멧돼지나 사슴, 토끼나 너구리같은 중·소형동물이 늘어났습니다. 빠른 동물을 사냥하는 활이나 요리에 사용하는 토기가 출현하면서 사람들은 '마을'을 형성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문물 이외에도 정보가 모이고 기술이 계승되었으며 정신적인 의식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가 죠몽문화입니다. 자연과 공존·공명하는 이 문화는 현재 일본문화의 기층을 형성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후쿠이동굴에 살았던 인류의 흔적을 읽어감으로써 구석기시대에서 죠몽시대로의 변화, 이 장렬한 변동기를 살아낸 인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후쿠이 동굴

표고:110m
사이즈:16.4m×깊이5.5m×높이4m

Fukui cave 01 후쿠이동굴의 발견부터 사적지정까지

후쿠이 동굴은 마츠우라시와의 경계에 가까운 규슈 서북부 사세보시 요시이쵸 후쿠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50년 전, 일본 역사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발견이 이 동굴에서 있었습니다.

1960년, 당시 일본열도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동굴유적을 중요시하던 일본고고학협회는 구석기·죠몽시대 연구자였던 세리자와 쵸스케(芹沢長介), 카마카 요시마사(鎌木義昌)를 담당자로 하는 조사단을 결성하였고, 1964년까지 3회에 걸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60년 후쿠이 동굴 제1차조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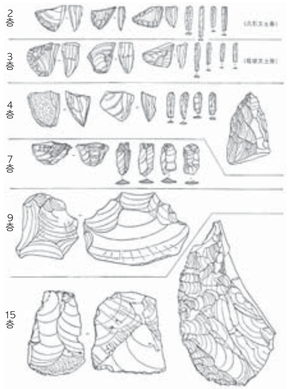
이 조사의 결과, 당시까지 구석기시대의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던 '좀돌날'과 '죠몽토기'가 같은 지층에서 별견되어, 좀돌날문화 내에서 토기가 출현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석기시대에서 죠몽시대로의 변화가 발굴조사를 통해 층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고고학사적으로도 중요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리자와팀은 당시로서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과학적 분석법의 하나인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각 지층의 연대를 추정하여 죠몽토기의 출현, 즉 죠몽시대의 시작을 약 1만2700년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후 이것은 편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각 지층에 따라 토기문양이나 형태가 변화하는 것에서 죠몽토기가 연대에 따라 문양이 변하는 과정을 파악하였으며, 발굴된 융기선문토기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토기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960년부터 1965년까지의 발굴자료
(카마키 세리자와 1967)

또한, 최하층 연대는 당시 기술의 한계치였던 3만2000년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어, 여기서부터 안산암제의 양면가공석기가 출토됨으로 인해 '후기구석기시대'보다 오래된 '전기구석기시대'에 인류가 일본열도에 도래한 흔적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학술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인정받아 1978년, 국가지정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후쿠이 동굴의 발견과 마츠세 준이치

신사의 배전 옆으로 1936년 세워진 개축건립기념비가 서있다. 이 개축당시, 규모를 확대한 신사본전을 안치하기 위해서 동굴의 지면을 1m정도 굴삭했다. 이 토사안에서 토기와 화살촉이 마을 향토사학자 마츠세 준이치에 의해 발견되어 유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마츠세는 스무 살경 감자밭에서 화살촉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고고학에 몰두한다. 또한 '서화', '하이쿠', '난초'에의 조예가 깊어, 하이쿠와 고고학자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공적은 요시이쵸 제1호 명예쵸민 으로, 또한 훈육등서보장(勳六等瑞宝章)등의 수여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Fukui cave 02 재발굴조사와 사적정비

사세보시는 2005년에 구 요시이쵸와 합병하여 전국 최다가 되는 31개소의 동굴유적을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본 시는 후쿠이유적을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기본구상을 책정하였고, 지역의 심볼로, 교육의 장으로 사적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 안에는 사적을 보존하는 공사 이외에도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굴의 발굴조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수년에 걸친 준비 끝에 2011년 2월부터 1년 4개월간 반세기만의 재발굴조사가 실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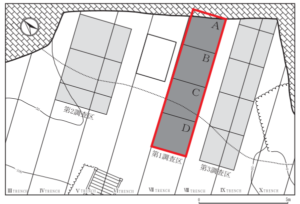
발굴조사의 성과는 이후 정비설계와 2016년부터의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적정비 전 : 동굴에는 1960년대에 발굴된 제2트렌치(조사구덩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지층을 노출전시하고 있는데, 벽이 무너지면서 유적이 파괴되고 있었다.

이 발굴조사를 통해 반세기 전 보다도 더욱 선명하게 후쿠이동굴에서의 생활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 진보에 따라 새로운 분석이 가능해짐으로 당시 동물과 식물, 또한 도구의 산지나 제작방법 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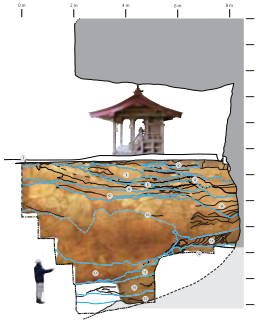
또 한가지는 6m를 수직으로 파는 조사의 안전을 기술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인해 삼차원 사진측량을 통해 지층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동굴의 형성으로 연결되고, 장기적인 조사가 새로운 문화층(불땐흔적이나 석기제작의 흔적)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전 연구자가 유적을 발견·발굴하고, 반세기 동안 지역주민이 사적을 소중하게 지켜왔으며, 각 연구자가 학술연구의 진보에 공헌한 축적의 결과 가능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발굴조사 : 1960년에 조사한 제1트렌치를 다시 재조사하였다.

사적정비 후 : 트렌치는 매립하고 인공물은 철거하였다. 동굴에는 신사만이 안치되어 있다.일본 고유의 경관을 가지고 있다.

후쿠이 동굴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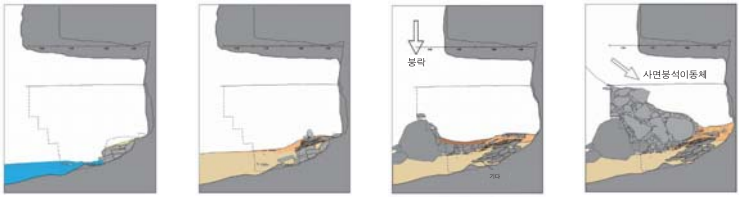


지층은 15층부터이며, 약 1만9000년~1만년 전으로 약 9000년간에 걸친 유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층에서는 좀돌날을 중심으로 한 석기나 토기가 약 7만점 출토되었으며 국내 구석기동굴에서는 처음으로 노(炉)의 흔적과 돌바닥(石敷)을 발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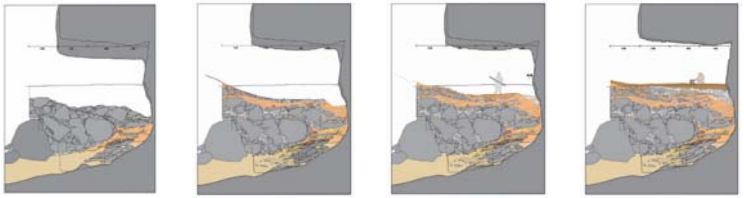
안타깝게도 후쿠이동굴의 시작(14·15층) 연대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후쿠이강에 의해 모래가 깎이거나 쌓이는 환경 속에서, 강의 영향이 없을 때 구석기인이 동굴에 와서 석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만9~8000년 전(13·12층)이 되면 생활패턴이 확실해집니다. 동굴의 중심에서 점점 안쪽에 불을 피워서 그 주변에서 석기를 만들고 식사를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만 7500년 전(11·10층)에는 동굴 옆쪽으로 사면붕적을 계기로 동굴 천장이 무너져 낙석과 토사가 포함된 대규모의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인류는 생활하는 것이 곤란해져서 동굴로부터 떨어져서 생활했던 것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똑같이 석기제작과 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1만7000년 전 : 7~9층). 이 즈음 동굴은 입구가 좁고 안쪽으로 깊은 지형으로 안쪽은 질퍽질퍽한 물웅덩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만6200년경(4층)이 되면 낙석 등이 점점 적어지면서, 동굴 중심에서 고기를 굽거나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만4~6000년전(2·3층)에는 대량의 좀돌날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없었던 '토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멧돼지의 이빨 등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토기에 넣어 끓여서 먹었던 것은 아닐까요. 10,000년전(1층)의 지층은 본전(本殿)설치에 의해 깎여버려서 알 수 없지만, 후쿠이강에서 채집한 안산암으로 석창을 제작하여 조엽수림 속에서 사냥을 했던 것을 동굴 주변의 조사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후쿠이동굴 주변에서는 이후 야요이시대 토기가 몇점 발견되었는데 생활의 흔적이 적어집니다. 전국시대가 되면 근처 나오야성유적(直谷城跡)의 귀문(북동) 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사가 안치되었고, 현재 후쿠이이나리신사(福井稲荷神社)의 전신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15층 : 19,000년 이전 / 12층 : 18,000년전 / 11층 : 17,500년전 (사면붕적)



10층 : 17,500년전 / 7-9층 : 17,000년전 / 4층 : 16,200년전 / 2층 : 14,700년전

구석기인의 동굴생활

노 (炉)

노(폭 52㎝×길이 60㎝). 약 1만7700년전(12층)의 것. 동굴 중앙의 채광이 좋은 건조한 장소에서 발견. 흙과 돌이 빨갛게 불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불탄 돌은 약 300℃ 이상의 열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돌바닥

돌바닥 (폭 2m 이상 × 길이 1. 6m) 약1만9000년전 (13층) 의 것. 동굴 입구 바위그늘 아래쯤에서 확인. 각진 현무암의 평평한 면을 위쪽으로 하고있다.

3차원측량으로 재현

2011년 5월 22일, 유물이 없이 낙석이 포함된 층을 굴삭기로 제거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날, 반세기 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팠던 트렌치피트를 발견하였기에 여러 선생님들의 열의에 압도되어 있었다. '이 지층에서부터 2m 정도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점심 직전, 점토가 드문드문 섞인 지층이 깨끗한 모래층으로 바뀌었다.

순간, 검게 빛나는 돌이 눈에 들어왔다. 그 후 계속해서 석기가 발견되면서 현장은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
동굴의 지면에서부터 4m아래로 흑요석 좀돌날을 제작한 장소가 발견된 순간이었다.

18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구석기인과 우리 현대인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사진
18000년전 (12층) 노지 주변의 좀돌날 출토상태
삼차원 데이터측량을 위해 유물 1점 1점의 위치를 표시해서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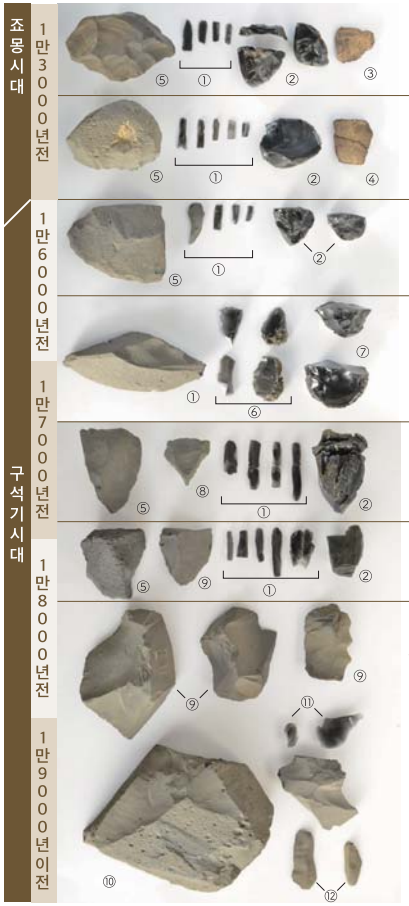
Fukui cave 03

후쿠이 동굴의 출토품

후쿠이 동굴은 구석기문화와 죠몽문화를 연결하는「문화의 다리」

~각 지층의 출토품에서 도구의 변화가 보인다~

①좀돌날
②좀돌날몸돌
③손톱무늬(爪形文)토기
④융기선문(隆起線文)토기
⑤긁개
⑥소형돌날
⑦소형돌날몸돌
⑧석추(石錐)
⑨격지
⑩몸돌
⑪흑요석
⑫안산암



2층 죠몽토기와 좀돌날이 같은 지층에서 출토! 2층이 손톱무늬 3층이 융기선문으로 토기의 문양도 변화

3층

4층 4층부터 아래로는 토기가 없다! 모양이 일정해진 석창이나 긁개가 제작된다.

7·9층 위아래층과는 완전히 다른 석기가 출토. 좀돌날문화 중에서 좀돌날을 만들지 않는 집단?

12층 노지를 발견! 노 주변에서 300점의 석기를 확인. 여기에서 석기를 만들었다.

13층 노지와 돌바닥을 발견! 좀돌날의 출현시기. 너비가 넓은 좀돌날이 특징적

14·15층 주로 안산암으로 석기를 만든다. 몇점의 흑요석 격지를 확인!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돌날문화와는 확실히 다르다.

제1트렌치 출토유물

제1트렌치에서는 약 7만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물을 합치면 20만점에 다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 지층 마다 석기나 토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세세한 변화의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과 집단의 개성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출토품

접합된 석기 (좀돌날과 좀돌날몸돌), 사용된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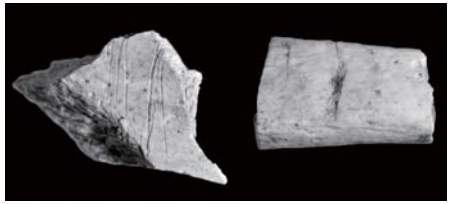
그림과 같은 공정으로 둥근 흑요석에서 좀돌날을 떼어내어 창 끝에 결합하거나 교체하는 식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구석기시대(약 1만8000년전 12층)의 좀돌날과 좀돌날몸돌 50점 정도가 접합된 좀돌날몸돌을 2개체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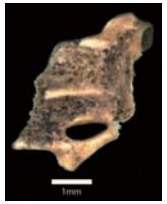
죠몽시대 초창기 (약 1만3천년 전)의 유물

2층의 좀돌날

현미경으로 확대했더니 사용했을 때 생긴 날의 손상을 발견.



간층 층에서 발견된 불에 탄 뼈에서는 석기에 의한 상처(흔적)를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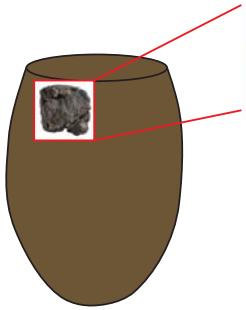
고등어의 꼬리지느러미

멧돼지의 이빨. 새끼 멧돼지에서 성장한 정도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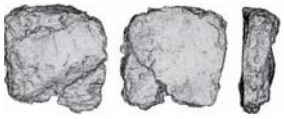
죠몽시대가 되면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면서 양쪽의 자원을 모두 이용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기 속에 남아있는 식물을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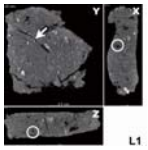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조각을 CT스캔해서 그 내부의 움푹 패인 곳에서 복원된 섬유를 조사해보니…. 점토반죽 안에 '양치식물'이 섞여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토된 석기조각 (1만 6000년전)



CT스캔한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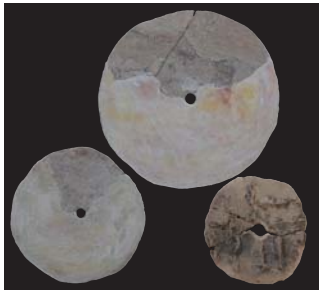


CT로 관찰할 수 있는 토기 단면

복원된 섬유

동굴에서 자라는 양치식물

특수한 도구 : 유공원반형 토제품과 석제품



토제품이 1점 (직경 65㎜×두께 5.5㎜).
사암으로 만든 석제품이 2점 (직경 110㎜×두께 6.1㎜·직경 80㎜×두께 4.4㎜)모두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융기선문(隆起線文)의 유공 원반형 토제품은 토기로 이용한 후, 제2의 도구로 재이용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펜던트 등의 장식품, 혹은 집단의 중심인물이 머리에 달았던 제사용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의 토제품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1963년 발굴조사 시 제2트렌치에서 출토 (사진 : 도호쿠 대학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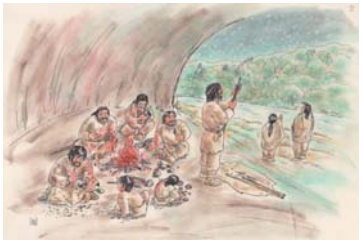
안산암의 원산지와 석기

긁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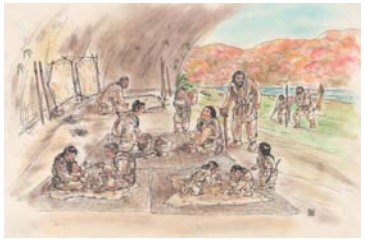
풍부한 자원으로 정형화 된 석기(가죽 무두질 도구 등)가 만들어졌다.

후쿠이동굴 앞을 흐르는 후쿠이강. 안산암 원석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

서북규슈지역 선사시대 동굴에서의 생활



구석기시대(1만8000년전) 동굴에서의 생활



죠몽시대의 시작 즈음(1만6000년전)의 동굴에서의 생활

후쿠이동굴 발굴조사에 의해서 약 1만9000년 전의 구석기시대부터 1만년 전의 죠몽시대까지의 동굴생활의 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구석기시대 동굴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낙석 등의 이유로 발굴조사를 통해 구석기시대 지층까지 도달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지만, 당시 구석기인들의 이동생활에 있어서는 이처럼 고정된 천연의 거주공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석기시대도 종말기에 접어들면서 기후변화와 함께 인류는 새로운 적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평야가 적은 서북규슈지역에 있어서 사암지대에 있는 동굴은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몇m 큰 間口의 후쿠이동굴에서는 불을 통해서 온기를 유지하면서 석기를 제작하며 내일의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후쿠이동굴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구석기시대 동굴생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죠몽시대가 되면 더욱 정주적요소가 강해집니다. 만들어지는 좀돌날의 수량은 증가하고, 몇가지의 공정이 필요한 '토기'가 제작됩니다. 인류의 혁신적인 도구인 토기의 출현을 통한 역사의 중요한 키를 쥔 유적이 후쿠이동굴이며, 근처에 있는 센푸쿠지동굴이나 이와시타동굴과 함께 살펴보면 소중한 인류의 역사를 더욱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죠몽시대 조기(1만년전)의 동굴에서의 생활

사세보의 동굴유적군 ~ 일본제일의 동굴유적마을 사세보 ~

② 나오야 바위그늘

◆사세보시 요시이초 나오야

구석기시대·죠몽시대 초창기·전기·야요이시대 후기
(약 40,000?·15,000·4,000·1,800년 전)의 유적.

후쿠이강 중류역, 표고 74m의 바위그늘에 위치한다. 1960년 동굴유적조사단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2006년에 사세보시가 재조사를 시행한 후, 계속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석기시대의 종말기부터 죠몽시대 초창기에는 후쿠이동굴과의 관련성을 보이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최하층의 연대가 40,000년을 넘는 연대치와 안산암제 석기가 발견되고 있다.
앞으로의 인류사를 생각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바위그늘 유적이다.

③ 시 지정 사적 하시카와치 동굴 (쇼와 1989년 시 지정)

◆사세보시 요시이초 하시카와치

죠몽시대 조기~만기·야요이시대 초기
(약10,000~2,000년 전)의 유적.

사세보시의 북부를 흐르는 사자강 중류역의 좌측강변, 표고 113m에 위치한다. 폭 13m의 큰 동굴로 북동쪽으로 개방되어 있고, 채광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근처에 물이 나오는 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70년에 나가사키대학 의학부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유물은 토기, 석기, 골각기가 출토되었다. 사슴의 경골(다리뼈)을 사용한 주걱모양의 골각이는 드물다. 특히 죠몽시대 조기의 거점유적이다.

④ 이와야구치 제2바위그늘

◆사세보시 세치바루초

죠몽시대 조기·후만기·고분시대
(약 10,000·4,000·1,500년 전)의 유적.

사세보시의 북부를 흐르는 사자강 중류역의 우측강변, 표고 90m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4개의 동굴입구가 근접해있으며, 근처에서 물이 나오는 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66년에 고대학협회를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고분시대의 내행화문경(內行花文鏡) 조각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고분시대 제사용 동굴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죠몽시대 후기 초두의 토기와 코시다케산 흑요석으로 만든 스즈오케(鈴桶)기법의 박편화살촉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⑤ 시 지정 사적 다이히칸 바위그늘 (1980년 시 지정)

◆사세보시 고사자초 고사카

죠몽시대 조기·전기·후기
(약 10,000·6,000·4,000년 전)의 유적.

바다에서 가까우며, 우스노우라(臼ノ浦)를 남서방향으로 바라보는 구릉부로, 표고20m에 위치한다.
1978년 사세보 고고학연구회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죠몽시대 조기·후기에는 굴이나 꼬막 등의 조개껍질이 재나 토기·석기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사자강유역의 거점유적으로 생각된다. 또한 탑모양이 된 사암의 남은 언덕 하나는 '大悲観'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어, 에도시대 후기에는 히라도(平戸)팔경의 하나로 꼽힌다. 현재 이 일대는 다이히칸(大悲観)공원으로 정비되었으며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어있다.

⑥ 오하시 관음 (돌다리)

◆사세보시 요시이초

에도시대 후기 (약 400년 전)의 유적.

사세보시 북부를 흐르는 사자강 중류역의 우측연안, 표고 120m에 위치한다. 동굴의 벽면부분이 무너져 다리가 걸쳐있는 듯한 기암지형이다. 동굴지형의 최종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며, 길이 30m 폭5m로 에도시대에는 사람이 왕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해진다. 유물은 없지만 에도시대 후기에는 히라도(平戸)가도를 따라 설치되었던 히라도팔경의 하나인 '돌다리'로 소개되어, 현재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어있다. 동굴에 무성한 양치류군락도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⑦ 사적 센푸쿠지 동굴 (1986년 국가 지정)

◆사세보시 세토고메1조메

구석기시대 종말·죠몽시대 초창기~조기
(약 16,000~10,000년 전)의 유적.

사세보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아이노우라강 중류역의 좌측연안, 표고 89m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4개의 동굴입구가 근접해있으며, 근처에 물이 나오는 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69년에 중학생이 발견하여, 아소 마사루씨를 중심으로 10년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죠몽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출토유물 5만점 중 '두립문(豆粒文)토기'를 포함하는 토기 8개체, 석기 1,956점이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⑧ 현 지정 이와시타 동굴 (1968년 현 지정)

◆사세보시 마츠세초

죠몽시대 조기~전기 (약 10,000~6,000년 전)의 유적.

센푸쿠지 동굴 건너편 강가에 있는 이시모리산 남사면의 사암 노두, 표고 200m에 위치한다.
1964년부터 4회에 걸쳐 아소우 마사루씨에 의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죠몽시대 조기와 전기에 해당하는 30개체의 인골이 확인되어, 묘역으로 동굴을 이용한 것이 밝혀졌다. 최근 국립과학박물관의 분석에 의하면 수명이 짧고 비교적 연약하게 수렵채집생활을 영위했던 죠몽인의 실태가 확인되었다. 일본굴지의 인류유적이라 할 수 있다.

⑨ 현 지정 시모모토야마 바위그늘 (2007년 현 지정)

◆사세보시 시모모토야마쵸

죠몽시대 전기·후기·야요이시대 후기 (약6,000·4,000·1,800년 전)의 유적.

아이노우라강 하류, 표고 10m의 당시 강 입구에서 가까운 바위그늘에 위치한다.1970년에 2회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죠몽 전기부터 야요이시대의 묘역과 생활유적으로, 묘켄미강에 인접한 사암 노두에 입구 30m×깊이 약 4m×높이 약3m 정도의 바위그늘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죠몽시대에는 4개체의 매장인골이, 죠몽전기에는 멧돼지 등의 포유류, 조류, 생선뼈, 조개류 및 석기류가 다수 출토되었고, 낚시바늘 등의 어로구와 조개팔찌, 팬던트 등의 장신구도 출토되고 있다. 야요이시대 돌상자무덤(箱式石棺)에서는 2개체의 매장인골이 확인되어, 야요이시대에는 묘역으로 이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⑩ 류진 동굴 (후쿠이시야마)

◆사세보시 후쿠이시쵸

헤이안시대~가마쿠라시대·에도시대 (약 1,000~800·400년 전)의 유적.

에보시산에서 이어지는 구릉 끝, 표고 25m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개방된 바위그늘지형으로 당시는 사세보만에 인접해 있었지만 현재는 매립지가 되었다.
하지키(土師器)와 스에키(須恵器), 활석제 석추와 함께 참굴과 암초성 고동이 출토되어, 당시의 어로 거류지로 추정되고 있다. 에도시대 후기에는 히라도가도를 따라 설치된 히라도팔경의 하나인 '나한굴(羅漢窟)'로 소개되어, 현재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어 '후쿠이시(福石)관음'이라는 애칭으로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다.

⑪ 겐규자키 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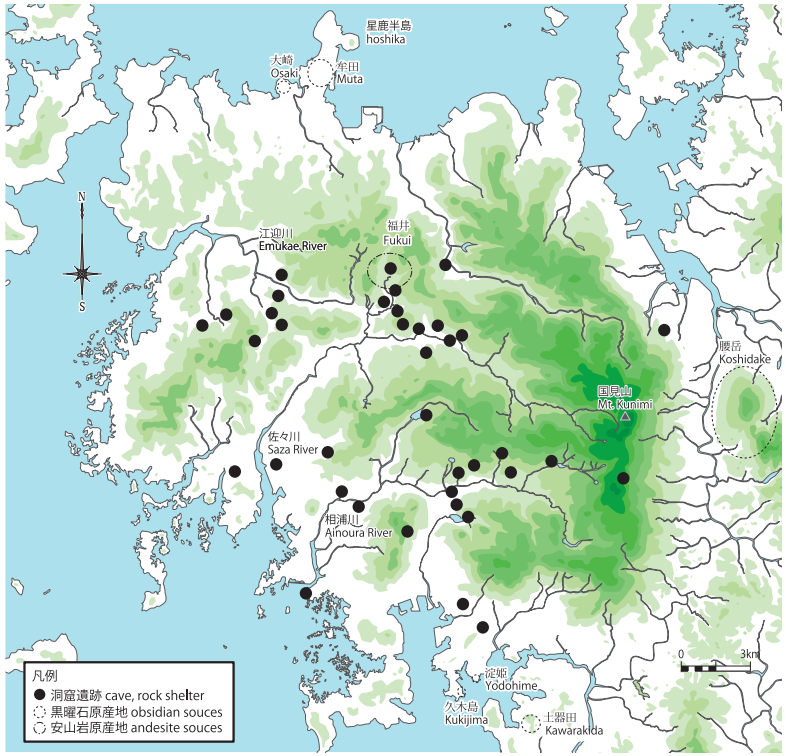
◆사세보시 히노쵸

무로마치시대 (약 600년 전)의 유적.

사이카이(西海)국립공원 구주쿠시마 해면을 바라보는 해식애(海食崖) 아래에 있다. 표고는 3m로 낮고, 만조 때에는 해안선까지 30㎝도 남지 않는다. 남쪽으로 개방되어있고, 동굴 내에 남은 경석(軽石)은 키카이(鬼界)칼데라의 분화로 분출된것이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세기 중국 징더전(景德鎭)계의 백자와 하지키(土師器)가 출토되고 있다. 암초성 고둥이 소량 출토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고고학협회에 의한 서북규슈 발굴조사에서 사세보시 지역의 발굴사는 시작됩니다. 후쿠이 동굴의 조사는 이어지는 이와시타 동굴, 시모모토야마 바위그늘, 센푸쿠지 동굴의 학술조사로 이어지고, 2018년 시점에서 31개소의 동굴유적을 발견, 유적의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숫자는 물론이고 동굴에 남아있는 인류의 역사와 그 학사를 총괄해보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국내 굴지의 동굴유적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굴유적을 축으로 통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는 달리 없습니다. 이야말로 '동굴유적 일본제일의 도시 사세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64년. 이와시타동굴 앞에서 토기편을 보고있는 연구자들 (오른 쪽부터 세리자와 쵸스케, 이시마루 타로, 나이토우 요시아츠, 아소우 마사루, 오다 시즈오, 촬영자 : 하스다 토모노리)



연대	지질연대	시대	후쿠이동굴	사세보의 동굴유적군
40000년전	갱신세 (플라이스토세)	구석기시대	※	나오야 바위그늘
				센푸쿠지 동굴·이와시타 동굴 코모다 동굴 후도묘오다니 바위그늘 카미나오야 바위그늘·나오야 바위그늘
16000년전		죠몽시대		센푸쿠지 · 동굴
				이와시타 동굴
				시모모토야마 바위그늘
				텐진 동굴
2000년전		야요이시대		시모모토야마 바위그늘
1800년전		고분시대		이와야구치 제2바위그늘
1400년전	완신세 (홀로세)	고대		센푸쿠지 동굴
1000년전		중세		류진 동굴
				켄규자키 동굴
400년전		근대		후도묘오다니 바위그늘 히라도 8경(타카이와·오하시칸논·다이히칸·후쿠이시야마)
		현대		무큐도(방공호)

※도호쿠 대학 제공

《동굴유적을 통한 교육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최우수상

고토 히로시(後藤 広志)
「메가네이와」

우수상

카리아즈마리 모모하(仮集 百葉)
「메가네이와」

야마시타 스즈노(山下 鈴乃)
「여러가지 토기들」

카와하라 히토미(川原 瞳)
「후쿠이 동굴」

즈모토 하나요(津本 はなよ)
「센푸쿠지 동굴에서 발견된 두립문토기」

사세보시교육위원회에서는 향토애의 양성과 문화재계발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향토사 체험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교육 부교재를 간행하여 각 초·중학교에 배포하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에게는 '고향의 역사 발견'수업을 통해 각지의 사적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내 초등학생들에게 사적관련 일러스트를 모집했습니다. 그 외에도 찾아가는 강좌인 '후쿠이 동굴'을 활용하여 지역학습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구석기시대부터 지역의 역사산책까지 폭넓은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역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지역 내 보존회에 의해서 '요시이지구 문화재보존 연락회'가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각 보존회에서는 지역의 축제 등의 전통행사 이외에도, 후쿠이 동굴이나 하시카와우지동굴, 나오야성 유적, 돌다리군 등의 청소 및 견학안내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착실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도 아이들에게 계승되는 문화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재 = 지역의 보물